

/지역 단신/

여수 '권역별 꽃도시' 조성

여수시가 꽃과 빛이 아름다운 새 희망 큰 여수로 거듭나기 위한 '플라워시티'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구역은 9월 중에 중간 보고회를 갖고 11월말 최종 보고회를 통해 12월초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의 기본계획은 여수시를 동부지역(공항, 여수산단), 서부지역(화양지구 관광레저단지), 중부지역(도시중심권과 엑스포 후보지), 남부지역(들산 등 도서 관광지)으로 나누어 4개 권역별로 특색 있게 꽃 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해양관광중심도시에 어울리는 특색 있는 플라워시티 조성계획과 시민 참여를 통한 범시민 꽃 꾸기 운동 추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해남서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해남군 '제1회 한여름밤의 문화축제'가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해남군민광장에서 열린다.

22일에는 해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룹사운드와 합창단, 어린이 가야금 연주단, 송지초 사물놀이 팀 공연, 23일에는 삼고무와 판소리, 호남검무, 북춤, 24일에는 합창단과 피아노 연주회, 25일에는 한국무용, 색소폰 연주회, 통기타 연주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한 공연이후에는 영화 '바람의 파이터'와 '8월의 크리스마스', '엑스맨 3', '여선생과 여제자'가 한 편씩 상영된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목포 중기발전자금 100억 지원

목포시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발전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3년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시중금융기관과 업체간의 협약에 의거 지급되며, 목포시에서 5%의 이차보전금을 1년간 지원하게 된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융자신청서와 최근 1년간 재무제표, 수출실적증의 서류를 준비하여 오는 25일까지 목포시청 투자통상과(270-3356)로 신청하면 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배롱나무 거리 조성 관광자원화

화순, 149km 국도에 2만그루 심어

화순군이 화순~능주간을 비롯해 남면 사령~복교, 동북 철정~유천리, 화순을 연양리~남면 절산리 등 전 국도 구간 약 149km에 2만여그루의 배롱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 <사진>

화순군은 지난 1992년부터 국·지방도, 관광유적지 등에 배롱나무 등 7개 수종 10만여 그루를 꾸준히 심는 등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에 힘써 왔다.

특히 남면 사수리 유희공간에 배롱나무 2천여본의 양묘단지를 조성하는 등 배롱나무 특화거리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목포 석현동에 사료공장·도축장·아파트 공사장 주민들 소음·분진·악취 '3重苦'

“여름철 폭염 창문도 못열어” 대책 호소

구 목포지방산업단지내 석현동 일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 각종 소음과 분진,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석현동 일대는 지난 2000년 7월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거나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는 S사료공장과 도축장이 위치해 있는데다 K건설이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있어 2천여 세대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분진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들은 “사료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악취 등으로 유아들의 경우 아토피 등 각종 피부병 발생이 늘고 있다”며 “인근 도축장 폐수처리장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어 폭염에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다”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에 주차를 해놓으면 사료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뿌옇게 쌓이고 소음과 피부병 발생을 염려해 여름철에는 아이들을 아예 친척집으로 대피시킬 정도라는 것.

여기에 지난 12월에 착공한 K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작업시간이 일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아무 때나 강행하는 공사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관련된 해당업체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료공장을 이전해야 하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leslee@



여름방학 기차마을 현장체험

영화테마파크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섬진강 기차마을 영화테마파크로

'아이스케기' 세트장내에 박물관 등 설치 곡성군 - (주)엠케이픽처스 MOU 체결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이 영화테마파크로 거듭난다. 곡성군(군수 조형래)은 섬진강기차마을 특구에서 촬영한 영화 '아이스케기' 세트장을 활용한 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6일 (주)엠케이픽처스(대표 이은)와 MOU를 체결했다.

곡성군과 (주)엠케이픽처스는 가칭 "MK곡성스튜디오"를 공동 건립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영화 '아이스케기'를 촬영한 섬진강기차마을 내 구 곡성역 주변에 영화 오픈

세트장, 영화박물관, 야외 전시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테마파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대부분 일회용으로 조성된 뒤 방치되기 일수였던 세트장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뿐 아니라 섬진강기차마을과 함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테마파크사업이 완료되면 섬진강기차마을과 함께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명소로 새롭게 부상할 것”이라며 “영화산업을 통한 곡성 방문 관광객 증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강진 다산수련원 '반쪽 운영'

준농림지역으로 숙박업 불가능

민간위탁 안돼 이용실적 저조

강진 다산수련원이 개관 1년이 다 되어도록 반쪽 운영되고 있다.

다산수련원은 청소년들에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사상 등을 고취시키고 관광객 숙박시설 제공 등 관광 자원화를 위해 44억원을 들여 2004년 착공,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천여㎡

인 다산수련원은 1층에 다산 자료실과 다도 체험실, 식당, 인턴버 지원실 등이 갖춰져 있고 2-3층은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 일대가 숙박업이 불가능한 준농림지역으로 당초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건립한 수련원 숙박시설이 군 자체운영으로 바뀌면서 정상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수련관에는 현재 일용직 직원 1명이 상주한 채 이용객이 있을 경우 외부 인력을 불러 식사를 제공하는 등 반쪽 운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은 개관 이후 10개월간 연인원 3천100여명이 이용했다고 밝혔으나 축구대회 참가 선수단(180명)의 장기 체류에 대학생 집단 숙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용실적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 관계자는 “수련원 일대에 대한 관광휴양지구 지정 용역이 오는 10월 말 끝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하면 숙박업이 가능하다”며 “이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해 수련원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위용 드러낸 장보고 유적지

오는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완도군 완도읍 장도 일대 장보고 유적지 복원공사 한창이다. 남문과 토성 등 일부 유적지는 복원이 완료돼 당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완도=정문조기자 ejchung@

순천 전국최대 우리밀 단지 만든다

올 생산 291t 전량 수매

순천시가 전국 최고의 우리 밀 생산단지 육성에 나섰다.

지난 2003년부터 종자와 친환경 퇴비 등 우리 밀 생산비 일부를 꾸준히 지원해 온 순천시는 지난 가을에 파종한 2006년 산 우리밀 291t(40kg들이 7천277가마)을 최근 농협을 통해 전량 수매했다.

이번에 수매한 밀은 재배계약을 맺은 (사)한국생협연대에서 전량 매입할 예정이다. 총 2억5천200만원의 농가소득이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 연간 400톤 이상의 우리 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 면적을 늘려 전국 최고의 우리밀 생산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한국생협연대와 함께 우리밀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전남도, 순천시, 순천대, 순천교육청, 기업체, 각급 사회단체 등과 우리밀 소비촉진 협약을 맺고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구내 식당에서 우리밀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실천운동을 펼쳐 나가는 등 관료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우리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이 우리 밀 소비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목포 하당 보행자 전용도로 휴식공간 탈바꿈

장미원·야외무대 등 조성

도시숲 조성 시범사업으로 리모델링한 목포시 하당 신도심내 보행자 전용도로(6천㎡)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변모했다.<사진>

목포시는 지난 5월 3억 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각종 장미 1천800여주를 식재한 장미원을 비롯 산책로, 소나무동산, 잔디밭 등 녹지공간과 청소년 야외무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하당기에도 바닥분수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더 보완할 계획”이라며 “연차적으로 하당지역 보행자도로 전 구간(10만㎡)에 대해서도 생태숲 조성, 주민편의시설, 산책로포장, 수경시설, 체육시설 등 테마별 주제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강진 '축구요람' 거듭난다

郡, 농고 축구부 창단에

연 1억원씩 예산 지원

강진군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축구부 창단을 추진하는 등 스포츠에 대한 집중투자에 나섰다.

강진군은 강진중 출신과 전국 10개 중학교에서 스카우트한 우수선수 등 15명 내외의 선수로 금명간 강진농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창단된다고 밝혔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농고 축구부가 창단되면 기존의 중앙초, 강진중과 연계돼 축구발전에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연간 1억원의 예산을 강진농고 축구부에 지원하고 빠른 시일내에 합

속소 건립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와함께 기존의 4개 인조, 천연잔디구장 외에 올해 축구전용 경기장 3면과 학교 인조축구장 1면 등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각종 운동부 선수들의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축구외에도 사이클, 태권도 등의 전지훈련과 전국규모 대회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오는 24일~29일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7개국 청소년 대표팀이 참가하는 '제1회 한국중등(U-15)축구연맹회장배 겸 전라남도지사배 국제청소년축구대회'가 강진군 종합운동장과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A row of various advertisements including real estate, legal services, and local business promotions.